

책에 대한 외경심 일깨우는 휴식처

일본 쇼와여대 '근대문고' 도서관

김난주

번역문학가

외국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다보면 마음에 맞고 풍부한 자료를 갖추고 있는 도서관이 주변에 있으면 큰 믿음이 된다. 더구나 전공에 관한 자료를 쉬 찾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다. 나는 5년 유학생생활 동안 세 학교를 다녔는데, 모두 나의 전공분야인 일본근대문학을 연구하기에 나무랄 데 없는 도서관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쇼와여자대학의 '근대문고'는 근대문학을 연구하는 학생들에게는 보고와 같았다.

'근대문고'는 이 대학의 창립자인 시인 히토미 도메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설립된, 일본근대문학의 자료를 망라한 전문 도서관이다. 규모는 대학 도서관의 한 층을 차지하는 정도로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지만, 근대문학의 자료에 관한 한 실망하는 법이 없다. 단행본에서 시시콜콜한 잡지에 이르기까지 두루 소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도서관의 깔끔함이다.

근자에 어떤 자료를 찾기 위해 국내 모 대학의 도서관을 찾은 일이 있었다. 미리 선배 교수와 약속을 해 출입허가는 받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나는 자료를 찾기 위해 직접 서고로 들어가, 먼지로 가득한 서가를 한칸한칸 뒤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순서도 뒤죽박죽, 책들은 오랜 세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았는지 먼지를 뽀얗게 덮여있고 있었다. 또 서고 안에는 의자 하나 없어 책을 꺼내 내용을 훑어보려 해도 바닥에 앉는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내가 찾은 자료들이 현대 것이어서 몇시간에 걸쳐 다소 견딜 수 있었는데, 그러느라 손은 물론이요 콧속까지 새카맣게 먼지를 먹었다.

'근대문고'를 관리하는 도서관원들은 모두 하얀 가운을 입고 있다. 마치 간호원처럼. 그리고 열람카드를 작성해 내면, 그들은 먼지 한톨 없이 정성스레 관리된 책을 환자 다루듯 조심스럽게 내준다. 그러니 받아드는 사람조차 책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물론 귀중한 자료를 오래도록 보존하여 이 도서관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나는

그래서 지금도 자료를 찾기 위해 일본을 방문할 때면 이 모교의 도서관에서 그 첫 봉사를 받는다. 그리고 그때마다 책에 대한 외경심을 배운다.

이런 태도는 비단 특정 도서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대문고'는 비교적 예외적인 경우지만, 동네 도서관에서도 그와 유사한 정성을 만날 수 있다. 나는 가정을 꾸리고는, 속이 허전할 때면 동네 도서관을 찾았다. 주로 구립 도서관과 동네 도서관이었는데, 이런 공공 도서관은 대개 공원을 끼고 있어 한나절 책 구경도 하고 산책도 하며 소일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였다. 일요일이면 널찍한 열람실에서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어린 꼬맹이들까지 책을 즐긴다. 그리고 따로 마련돼 있는 아동실에서는 엄마 손을 잡고 나온 두세살짜리 아이들이 동화책을 뒤적거리거나, 엄마가 읽어주는 구연동화에 귀 기울이고 있다.

도서관이 공부하거나 자료를 찾는 사람들만을 위한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일반인들을 위한, 그들이 한나절 편안히 쉬면서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문화공간인 셈이다. 이런 동네 도서관에도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려는 배려가 곳곳에 배어 있다. 지역 자료실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 관한 온갖 자료를 만날 수 있고, 잡지실에서는 푸근한 소파에 앉아 다달이 새로 나오는 무수한 잡지들을 읽을 수 있다. 열람실은 개가식이어서 어떤 책이든 마음대로 꺼내볼 수 있다. 꺼내본 책들은 다시 서가에 꽂는 것이 아니라 카운터로 들고가면 직원들이 하나하나 정리해 다시 서가에 꽂는다. 그 과정 모두에 이용자와 관리자의 조심스러움과 정성이 배어 있다.

서울 근교의 소위 수도권으로 이사온 지 어언 2년이다. 그러나 인근에 그런 도서관이 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요즘처럼 절박한 시기에 우리에게도 그런 푸근한 휴식처가 있으면 얼마나 위안이 될까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

지식향유의 행복이 있는 '큰 건물'

프랑스 파리의 보부르 도서관

황의조

서울대 불문과 강사

고요하고 진지하고 엄숙한 늙은 아카데미즘의 권위와 함께 도서관의 초상화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파리 '보부르 도서관' (시민정보 도서관)이 주는 첫인상과 경험은 상당히 당혹스럽다. 그것은 단지 관광객들로 밤낮없이 북적거리는, 시멘트를 쓰지 않았다는 신개념의 — 그러나 솔직히 여전히 우스꽝스럽게만 보이는 — 단일 복합건물 안에 극장·전시장·현대 미술관·식당·전당대 등과 함께 도서관이 있다는 비통념적 현실 때문만은 아니다.

도서관 내부의 사정은 훨씬 더 '끔찍'한데, 외계인이라도 자유로울 출입규정 때문에, 때로 기성을 지르는 어린아이로부터 기침을 멈추지 않는 은퇴한 평생의 독학자는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수시로 기웃거리며, 종종 거리의 천사들도 낯은 넥타이를 매고는 열심히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이 경우 문제는 썩지 않아 발생하는 악취에 있는데, 필경 옆자리가 비기는 하지만, 그가 독서할 권리는 결단코 침해되지 않는다.

가끔 머리가 '비정상적'인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꼭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그분들도 불어로 말하니, 불어를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막지는 않겠다. 당연히 소지품을 주의하라는 주기적인 안내방송이 흔하지 않은 정적을 또다시 깨뜨린다. 방송장치가 되어 있지만, 한쪽에서는 신청한 음악을 듣고 한쪽에서는 비디오로 그림을 감상하고, 한쪽에서는 수십 가지 외국어 시청각실이 있다. 시간마다 우루루 교대를 하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책에 몰두해 있다가 화재라도 난 줄 알고 깜짝깜짝 놀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이용객들은 프랑스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역사를 만들고 있는' 성실하고 우수한 학생·학자들이다.

컴퓨터에 의한 자료의 정보화, 다른 도서관들과의 정보공유 수준은 상투화된 시대적 요청인 만큼 더 언급하지 않겠다. 정보화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흥미롭고 중요한 것은, 도서관의 이 새로운 개념전환에 모든 시민들이 어떤 제한 없이 직접 참여하고 익숙해지도록 하는 방법과

그 실현을 모색하는 운영 방침의 윤리성이다.

그러면 모든 시민에게 제한 없는 지식 향유를 무상으로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 '서비스' 정신에 대한 건망증이 없이 어떻게 경영할까? 예컨대, 완전 자유개개인의 상태에서 도서관 재산인 책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보부르의 모든 책들은 투명한 셀로판지 같은 것으로 재장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책의 물질적 훼손을 막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도서관 특유의 보이지 않는 재산보전 대안이다. 그 투명한 용지는 전자감응을 받도록 특수화되어 있어, 출입구에서 자동적으로 통제가 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책을 읽는다는 일이 때로 불행하고 때로 행복한, 총체적 삶의 어떤 독점적 권위도 아닌 일상적 일부임을 '거저' 깨닫게 해주는 이 도서관의 가치를, 필자는 프랑스라는 나라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사회적 지향성의 한 성과로 보고 싶다. 그 말은 어떤 전문적 연구가들을 위해서는 파리의 퓌비악에 세워진 세계 최대의 새 성채와 함께 전통과 권위의 국립도서관이 필수적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거대한 상징성을 통해 시민을 소환한다기보다 개방과 확산을 통해 이용자들을 초대해야 하며, 허물없이 지역과 계층을 파고들어야 한다. 책을 읽기 위해 큰 건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책 자체가 이미 좋은 사회, 좋은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사회가 잘못 지향하고 있는 행복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치는 '큰 건물'이다. ❖

연구의 지속성 보장해주는 문화환경

중국 북경사범대학 도서관

이창호

협성대 교수 · 중국어과

학문의 요람이라 불리는 대학이라는
 탑에서 탑정(塔頂)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대학의 도서관을 꼽는다.
 도서관의 시설이 어떠하며 장서가 얼마나
 되는가 등이 대학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일 터이다. 중국의
 대학이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꼽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도서관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온 나는 북경에 도착한
 후 북경사범대학 중앙도서관부터 찾았다.

처음 이 도서관을 들어설 때의 난감함과
 무안함이 아직까지도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아 그때를 떠올릴 때면 항상 얼굴이
 붉어진다. 내 숙소는 바로 도서관의 동쪽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없이 숙소에서 신고다니던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도서관문을 들어섰던 것이다.
 그때 한 노기면 영감님이 켄 걸음으로 내게
 다가와 입장을 제지했다. 이유는 도서관에
 어떻게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는 것이다.
 정숙해야 할 도서관을 소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어서 나가라며, 나의 무책임과 부주의를
 나무라셨다.

논문에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무수히
 드나들었던 이 도서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학생들이 앉아서 책을 읽는 공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주로 시험준비 장소로
 이용되는 우리 도서관에 익숙해서인지,
 처음엔 그 모습이 낯설었다. 하지만 중국의
 대학도서관은 도서 소장·열람 및 자료검색
 이라는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학생들의 독서를 위해서는 학교가 강의실을
 개방하고 있었다.

도서관이 소장한 도서의 양 역시
 나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중국 10대
 중점투자 종합대학의 하나인 북경사범대학의
 도서관은 무려 280여만권의 서적을
 소장하고 있었다. 이것은 대출기간의
 장기화와 대출권수의 다량화로 연결되어
 연구의 지속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훌륭한
 환경이 되어 주었다.

한번은 밤새 고민하던 문제에 힌트를 줄
 수 있는 소논문이 어떤 잡지에 실렸는지
 알게 되어 도서관이 열리자마자 잡지실로
 달려갔다. 그런데 하필 그 잡지를 어떤
 노교수님이 빌려가셔서 2달 뒤에나

반납하실 예정이라는 것이다. 한시바빠
 살펴보고 싶은 마음에 사서에게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물었다. 질문을 받은 사서는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한국에서 갓 유학온 학생이라고
 하니 이해하겠다는 학교 교학연구실
 (敎學研究室)이나 유학생 도서실에도 그
 잡지가 비치되어 있다고 했다. 중국에서는,
 아니 적어도 북경사범대학에서는 동일한
 서적이나 잡지가 중앙도서관 뿐만 아니라
 교학연구실, 단과대학 열람실, 유학생
 도서실 등에 공동으로 소장되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왔다.

또 나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은 북경도서관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그곳의 대출 및 반납창구는 서가와
 롤링머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창구업무를
 보는 사람은 이 설비를 이용하여 서가 내의
 사서들과 자료를 주고받았다. 그래서
 창구에서는 사서들이 책을 들고 오가는
 모습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업무를
 철저히 분담해 일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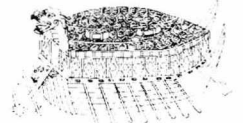
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먼저 이용자의 편의를 배려해야
 한다. 중국도서관이 우리 도서관에 주는
 교훈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언제든
 지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도서관이 이용자의 편의를 적극
 고려하면 당연히 도서관을 찾는 발걸음은
 잦아진다. 도서관의 활용도가 바로 학문의
 발전, 나아가 국가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때 중국의 도서관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많다. ❖

거꾸로 읽으면
 똑바로 보인다!

DONGSAN
 독산동아
 TEL: 853-5608
 http://www.dong-a.com

누군가 찾아야 할 도둑맞은 우리 역사

한반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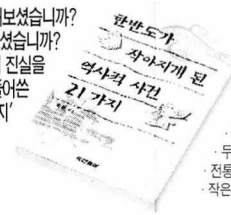
작아지게 된

역사적 사건

기까지



우리땅은 한반도가 아니라 생각, 해보셨습니까?
 삼국통일이 통일이 아니라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우리역사의 진실은
 새로운 시각에서 재미있고 쉽게 풀어쓴
 '한반도가 작아지게 된 역사적 사건 21가지'
 한국사, 이제 거꾸로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부터 넓혀드립니다.



거시적 안목으로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수준있는 한국사

- 단군신화는 우리 역사가 작아지게 된 첫 출발점
- 너무나 길었던 삼국시대
- 통일이 아닌 통일, 삼국통일
- 너무 편이한 두 개의 천리장성
- 두 얼굴의 과거제도
- 전통사상에 관한 서적으로만 꽂힌 조선의 금서목록
- 작은 거리를 고백하는 까닭 등.....

박 현 지음 / 7,000원

슬슬 읽으면 씩씩 들어오게
 풀어쓴 현대철학 이야기

DONGSAN
 독산동아
 TEL: 853-5608
 http://www.dong-a.com

읽기 전에는
 아는 척하느라
 힘들었다!



필수 핵심용어 30가지 완벽 정리

현대철학은 진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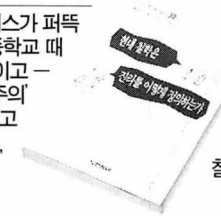
- 마르쿠스/인어가지
- 니체/권력의지
- 프로이트/무의식
- 소쉬르/기표와 기의
- 후설/판단중지
- 레닌/악한 고리
- 융/집단 무의식
- 아인슈타인/상대성
- 케인스/유료수요
- 바울라르/인식론적 단절
- 루카치/계급의식
- 하이데거/현존재
- 그람시/헤게모니

- 라캉/욕망
- 아도르노/계몽
- 사르트르/자유
- 브로델/장기 지속
- 비트겐슈타인/언어 게임
- 하이젠베르크/불확정성
- 레비스트로스/심층구조
- 바르트/신화
- 알튀세르/이데올로기
- 쿤/패러다임
- 리오타르/포스트모던
- 들리조와 가타리/욕망
- 푸코/지식-권력
- 보드리야르/시뮬라시옹
- 하버마스/의사소통
- 데리다/해체
- 부르디외/아비투스

읽은 후에는
 아는 척하느라
 바빠졌다!



철학자라면 소크라테스가 퍼뜩
 떠오르고, 철학자라면 고등학교 때
 배운 상식 수준이고 -
 누가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운운할 때면 중간이나 가려고
 침묵을 지키시던 분들을 위해,



현대 철학자 30인의
 철학적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현대 철학은 진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
 이 책 한 권이면 당신도
 철학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남경태 지음 / 6,800원